

알레르기성 비염



김종남

봄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봄이 오면, 가슴이 벅차 오르는 상춘의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앞서 코가 막히고 몹은 코물이 줄줄 흐르고 터져 나오는 재채기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험을 앞두고, 혹은 책을 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들이 꽂혀 있는 서가에 가까이 갈수록 콧물과 재채기가 터지는 사람, 이들은 거의 모두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 질환의 원인은 인체의 면역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유발물질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비점막의 이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써, 발작성 재채기, 수양성 콧물, 코막힘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1. 유전적 소인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화분증은 대개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데, 양친이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을 때 태아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빈도가 40~60%에 이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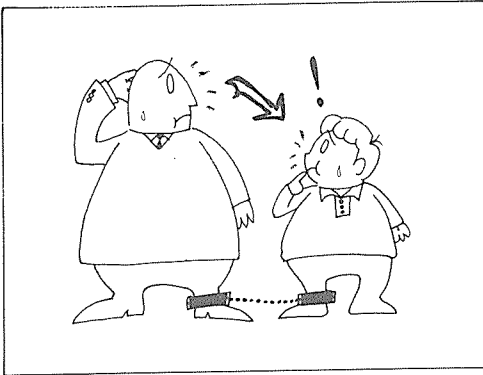
2. 증상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아기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20세 이전에 증상을 나타낸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코막힘, 콧물, 가려움증 및 재채기이다. 코막힘은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막히며 지속적으로 한쪽이 막히면 비염이나 구조적인 이상을 의미한다. 과도한 콧물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코를 킁킁거리거나 자주 풀고 목뒤로 콧물이 넘어가 기침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가려움증이 생기면 이를 없애려고 코를 문지르고 잡아당기고 비틀고 하는데 특히 손바닥으로 코끝을 위로 닦거나 손가락으로 외비공을 양옆으로 훑치기도 한다.

재채기는 아침에 발작적으로 나오는데 눈물도 많이 나오고 재채기 중간에 눈을 감게 되어 운전 중에는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외에 냄새를 잘 못 맡으면 코나 목의 건조감으로 목소리 가 변하거나 코피도 생길 수 있다. 환자는 수면 부족과 만성 상기도 감염 때문에 피로감과 전신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탄소 등 공해물질이 자극 물질로 작용한다. 그외에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도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한다.

4. 진단

질병을 치료하는데 정확한 원인 규

3. 유발인자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인자로는 이물질에의 노출, 대기조건, 자극물질 등이 있는데 증상의 양상과 정도는 개개인의 감수성, 이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와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애완동물, 집먼지, 먼지진드기, 곰팡이 포자에 대해 일년내내 노출될 때는 연중 증상을 나타내고 겨울에 더 악화된다.

털베개, 오래된 양탄자, 담요, 매트리스, 가구 등이 먼지와 진드기의 발생원이 되고 습기는 진드기와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화초와 책같은 종이로 만든 것에서도 자랄 수 있다.

화분(꽃가루)에 대한 노출과 증상의 정도는 계절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화분의 농도에 비례한다.

이외에 향료, 페인트, 담배연기, 인쇄잉크, 가루비누, 오존, 일산화

양친이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을 때 태아에서의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빈도는 40~60%에 이른다고 한다.

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로 특이 알레르기 질환에서 원인적 소인을 찾아내려는 것은 치료에 필수적이다.

자세한 문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학적 검사조건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의심되면 주로 흡인성 이물질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 이물질을 규명하는데는 체내 체외 검사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종합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종류에는 체외검사로는 피부 반응 검사, 혈중 및 비루중 호산구 검사, 유발검사가 있으며 체내검사로는 RAST, ELISA 등의 혈청내 특이항원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5. 치료

1. 회피요법

화분증의 경우 원인이 되는 향원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계절에는

창문을 닫거나 여과장치를 하거나 환기시설을 하여 항원을 피하도록 한다.

2. 대증요법

회피요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증요법을 실시하는데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항히스타민제와 혈관수축제가 유용하다. 항히스타민제는 그 효과가 빠르고 콧물 및 재채기에는 효과가 좋으나 전체적인 효과는 현저하지 않으며 코막힘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달 감작요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동안 또는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단시간의 복용으로 효과를 보는데는 좋다.

항히스타민제와 혈관 수축제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국소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적다. 스테로이드 국소분무제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분무제이므로 국소의 자극도 적으며 1일 2회로 기구를 사용하여 코 속에 투여한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기전에 의한 비만 세포로부터의 화학매개체의 유리를 억제하는 약물이 개발되어 증상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약제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임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1~2주간은 사용해


야 하며 화분증에서는 화분이 날아다니는 시기가 예측되므로 이 시기보다 약 2주일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3. 면역요법

위의 방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역요법을 시도하게 된다. 면역요법이란 병의 원인이 되는 항원의 양을 서서히 증량하면서 투여하여 그 항원에 대한 면역능력을 올려주어 증상의 호전이나 적어도 약물의 용량의 감소를 시도하는 것이다.

단, 환자의 병력과 피부반응 검사가 일치할 경우에만 면역요법을 실시하며 식이성 항원이나 동물의 털이 항원일 경우는 대개 면역요법을 실시하지 않는다.

의식주의 변화, 공해 등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은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발생기전이 밝혀지고 진단 및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근치시키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심한 관심으로 환자와 의사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보다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이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코막힘, 콧물, 가려움증, 재채기 등이다.